

학력과 경제활동상태로 본 40대 미혼

- 초혼 연령이 늦어지는 만혼화 현상이 지난 몇 년간 주목되어 왔음.
- 기존 연구들은 주로 30대까지의 만혼화 현상을 연구해 왔는데, 만혼화 현상의 영향은 40대 미혼인구 증가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 1985년에는 40대 미혼율이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표 1>은 1985년부터 2010년까지 미혼율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연령별로 보여주고 있음.
 - 1985년 1.4%였던 남성 40세 미혼율은 2010년 14.8%로 증가했고, 1985년 0.2%였던 45세 미혼율은 2010년 7.7%로 증가했으며, 49세 남성 미혼율도 같은 시기 0.3%에서 4.4%로 증가했음.
 -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도 더 미혼율이 증가할 것으로 추측됨.
 - 여성보다는 남성의 미혼율이 각 연령에서 두 배 이상 높음.

<표 1> 성별·연령별·연도별 미혼율(연평균)

(단위 : %)

	남 성					여 성				
	2010	2004	1999	1994	1985	2010	2004	1999	1994	1985
40세	14.8	8.0	5.3	3.5	1.4	7.0	2.9	1.6	1.9	1.1
41세	13.2	7.5	6.3	2.3	0.8	4.4	3.8	1.4	1.7	0.7
42세	11.8	6.2	4.2	1.8	0.4	4.1	2.1	2.0	0.8	0.3
43세	10.9	5.9	2.7	1.7	0.4	3.5	1.4	1.3	0.9	0.3
44세	9.0	3.1	2.6	1.4	0.2	2.5	1.8	2.3	0.8	0.5
45세	7.7	3.7	1.6	0.8	0.2	2.3	1.9	1.1	1.2	0.7
46세	6.6	4.1	1.6	0.7	0.1	2.0	2.9	1.1	0.5	0.1
47세	4.5	3.1	1.4	1.7	0.3	1.7	1.6	1.5	0.3	0.5
48세	5.1	2.4	0.9	0.6	0.2	1.8	1.1	0.6	0.9	0.6
49세	4.4	1.9	1.3	0.9	0.3	1.2	1.4	0.8	1.3	0.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 남성 만혼화는 저학력자의 문제이고, 여성 만혼화는 고학력자의 문제임을 알 수 있음(표 2 참조).
 - 남성 고졸 미만의 미혼자 비중은 무려 22.0%이지만, 남성 대졸 이상의 미혼자 비중은 4.3%로 약 1/5에 불과함.
 - 반면, 여성 고졸 미만 중 미혼자 비중은 2.4%이지만, 대졸 이상의 미혼자 비중은 6.9%로 두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2〉 40대의 성별·학력별 혼인상태 비중

(단위:%, 천 명)

	남 성			여 성		
	미혼자 비중	기혼자 비중	전 체	미혼자 비중	기혼자 비중	전 체
고졸 미만	22.0	78.0	100.0 (403)	2.4	97.6	100.0 (654)
고졸	9.8	90.2	100.0 (1,931)	1.7	98.3	100.0 (2,317)
전문대졸	7.8	92.2	100.0 (381)	3.7	96.3	100.0 (318)
대졸 이상	4.3	95.7	100.0 (1,596)	6.9	93.1	100.0 (865)
전 체	8.8	91.2	100.0 (4,261)	3.1	97.0	100.0 (4,157)

주: 기혼자는 기혼 유배우, 이혼, 사별을 모두 포함.
 자료: 통계청(2010),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경제활동상태별로 보면, 남성 40대 미혼은 불안정 취업의 문제임을 알 수 있음.
 - 40대 미취업자 중 미혼자 비중은 27.4%, 임시·일용직, 무급가족종사자에서 10% 이상의 미혼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여성은 학력 통계에서 짐작 가능하듯 상용직이고 고용주이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미혼율이 높았음.

〈표 3〉 40대의 성별·경제활동상태별 혼인상태 비중

(단위:%, 천 명)

	남 성			여 성		
	미혼자 비중	기혼자 비중	전 체	미혼자 비중	기혼자 비중	전 체
미취업자	27.4	72.6	100.0 (166)	2.2	97.8	100.0 (1,074)
상용직	5.0	95.0	100.0 (2,015)	5.3	94.7	100.0 (817)
임시직	13.5	86.5	100.0 (455)	3.2	96.8	100.0 (1,044)
일용직	17.7	82.3	100.0 (357)	2.7	97.3	100.0 (331)
고용주	3.4	96.6	100.0 (487)	5.2	94.8	100.0 (147)
자영업자	6.6	93.5	100.0 (750)	3.6	96.4	100.0 (360)
무급가족종사자	19.0	81.0	100.0 (31)	0.2	99.8	100.0 (385)
전 체	8.8	91.2	100.0 (4,261)	3.1	97.0	100.0 (4,157)

주: 기혼자는 기혼 유배우, 이혼, 사별을 모두 포함.
 자료: 통계청(2010),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이 통계는 남녀의 혼인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서의 차이를 보여줌과 동시에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상태에 있는 남성들이 이전 시대와는 다른 차원에서 생활상의 큰 좌절에 부딪히고 있음을 보여줌.
 - 취약집단이 겪고 있는 결혼만이 아니라 생활상의 다른 측면에서 나타나는 어려움, 격차도 조명될 필요가 있음.
 - 또한 노동시장 취약집단의 장기적 상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대책은 단순히 개인의 일자리 전망만이 아니라 인생 전반의 개선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 고용의 질을 높이는 정책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함. **KLI**

(성재민,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